

# 수의사의 피해의식과 매너

趙 亨 基

(동교동수의과병원)

임상수의사라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의 병원을 가져 보는것이 소망일 것이다. 소동물물 취급할 경우 병원내에 악취가 없어야 하고 부족하나마 편리한 의료시설을 확보하고 임상병리의 기초진단을 통하여 진단의 확실성을 기하고 분위기가 좋은 병원으로 고객을 맞이하며 높은 인격과 학식으로 고명한 수의사가 되어 못사람들의 선망의 직업이 되는것을 원할것이다.

수도 서울시 수의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례이사회가 끝나고 회식석상에서 평소 존경하여 온 선배께서 趙院長은 '개'매매를 하지 않느냐고 조용히 묻는 것이다. 사실상 근년들어 parvovirus性腸炎이 폭발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그로 인해서 강아지가 數없이 희생 당하는것을 보니 매매행위는 엄두도 못내고 생각조차 하여 본적이 없는것이나, 어쩌다 가정에 있는것을 고객을 데리고 가서 소개한 정도밖에는 없노라고 했다. 장사적 천성이 없는 덕택으로 병든 강아지 팔았다고 말썽부리는 사람없어 다행인지는 몰라도 사실은 나의 뇌리에 박혀있는 전염병학적 用語가 나를 강박관념으로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강아지 수집과 매매는 못하고 있는것이다.

人医에서는 Iatrogenic이란 用語가 있긴 하나 애견상들의 자건의 수집 및 계류와 관련해서 수의사는 이와 같은 (의학적 용어가 의미하는) 상태를 어떤 용어를 써서 풀이를 하여야 할런지?

李撓明 博士께서 "Reservoir infection"이란 用語를 가르쳐 주지 않았던들 나도 이 판국에 강아지를 팔아서 돈도 벌줄 알았을런지도 모른다. 차제에 수의사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수의사의 위신이나 권익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위

해서 수의사 像이나 전염병학적 견지에서 이와 같은 글을 써서 소신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민의 의식구조상, 축주들은 가축병원과 애견매매업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여기는 풍조가 날로 증대되고 심지어는 동물의 매매 행위와 관련된 연계성으로 이들 업소에 환축의 진료까지 의뢰하는가 하면 이들 일부에서는 서슴없이 불법진료 행위까지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행정당국이나 수의사회로서 이와같은 모순을 도외시 하거나 방치할 경우 수의사의 진료권 및 품위에 정면으로 손상을 당하는 일이 되며, 그런가 하면 정상적인 가축병원은 품위에 손상을 일으킬까 봐서 간판이나 선전 문구에 저속하고 조잡성을 스스로 삼가하고 있는것이나 이들 몇몇 업소에서는 업주들의 상업주의적 商행위로 써 가능한 모든 저속한 용어들(교배, 매매 등) 조잡하게 부착하므로써 시민을 현혹시키고, 매매 과정에서 건강권이 아닌 이환권을 잘못 매매 하므로써 야기되는 시민의 원성과 마찰이 적지 아니 일어나고 있음을 익히 보아온 터이다.

실상가상격으로 이와 같은 업소에 수의사까지 고용하므로써 전체 수의사의 권위나 품위를 노골적으로 추락케 하는것은 모든 수의사 像을 해치는 위기 의식마저 갖게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들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間에 이들 "애견센터"를 정상적인 가축병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시민의 의식구조에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업소로 연유해서 수의사의 권위가 사회적으로 추락됨은 불문가지이며, 또한 이들 업소가 시중에 독버섯처럼 생겨남은 불행

한 일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수의사 연륜 25성상이 넘은 요즈음 나에 대한 사회적 존칭어는 대중화되어 있는 아저씨 쪽으로 패턴이 변화되어가고 있는것을 솔직히 부인할수가 없게 되었다. 병을 다스리는 의사에게 보은의 情으로 박사님, 선생님 하는것은 언어상의 격조로 볼때 어색하지 않은 표현일 것이다.

말 없는 동물의 질병을 다스리는 봉사업으로서 극소수 손님한테만 대접을 받는 직업이기는 하지만 의료인의 처세는 털끝하나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생명을 다스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 타인에게 봉사한 것 만큼만 '格'에 맞는 대접을 받고 사회생활을 꾸려 나가는 것이긴 하나 그 '매너'는 또 다른 面을 좌우한다. 우리는 아저씨나 선생님이나의 격에 맞는 보편성의 대우를 자기자신의 의사적 '매너'를 통해서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선생님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냉혹한 사회에 외롭게 서 있는 처지이다. 수의사인 나는 상업주의적 처세보다는 생명체를 다스리는 직업인답게 존엄성과 권위의식을 가지고 처세하므로써 세칭 선생님이라는 조그마한 대접이라도 받을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런데 앞서 말한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구입할 때에는 매매 업소를 가축병원 인양 착각이나 오인을 하고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구입한 강아지가 사자마자 疾病이 생겨 손해를 보게 되면 병든 강아지를 판 사람을 사회적으로 몹쓸 사람으로 취급하고 만다는 것이다. 축주들의 이러한 증오의식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어서 파급될때 이들 상인들로 인해 애꿎게 수의사 像은 추락될 것이고 이와 같은 증오심이나 축주들의 구매 심리로 미루어 볼때 이들 상인들에 대한 사회적 존칭이 격조높게 표현될리는 만무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수의사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고로 우리

는 世人들로 부터 존경받는 수의사 상을 정립하고, 후배들에게 좋은 전통을 물려 주려는 것이 지상명제라 생각할때, 더더욱 전율을 느끼는 것은 수의사 선후배 제현의 체면에 손상을 끼칠수 있는 수의사 상을 해치기 십상인 이들 업소의 '수의사 고용'이나 이제까지의 고질적 폐습을 상식화 시키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아닐수 없다.

시민들이 아직까지 수의사의 권위나 위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와 같은 넌센스적 요소들을 발본색원 하여야 할 것이며 전체 수의사의 체면을 봐서라도 이와 같은 수의사 고용은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수의사회에서는 수의사들의 단체답게 애견가들의 피해의식을 최대한 줄이려는 운동의 일환으로 수의과병원과 애견매매업소의 기능을 식별해서 이용토록 매스콤을 통해서 기회 있을때마다 계몽활동을 펴는 동시에 강아지의 구입요령이나 사육에 관한 홍보를 유효적절히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역점을 두어서 홍보할 사항은 어린 생명체를 일차적으로 보호하는 캠페인을 벌여 시민으로 하여금 피해의식이 불식되도록 하는것이 수의사가 더불어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첩경인 것이다. 재언컨데 생명체를 다스리고 보급하는 직업인에게 절실한 것은 Vital Veneration이 투철하여야 되고 이를 얼마만큼 행동으로 실천하는가가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수의사 상에 관한한 모두가 연대의식을 가져야 할 때인 것이다.

註] Reservoir of infection :

a Source of pathogenic organisms in permanent host or health carriers, from which they spread to cause disease(연구적 숙주 혹은 불현성으로 보균하고 있는 병원 미생물의 근원으로 부터 병원균의 전파로 말미암아 질병을 일으킴).